

루이사 피카레타의 저술에 의거하여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 쓴
하느님의 뜻 영성 입문서 (청소년용 전편)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

지은이: 세븐드롭스

옮긴이: 박 요한 실비아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

지은이: 세븐드롭스
그린이: 메리 (15세)
펴낸이: 웨인 (17세)
옮긴이: 박 요한 실비아

저는 하느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떠도는 청소년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도록
이 책이 저술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 익명의 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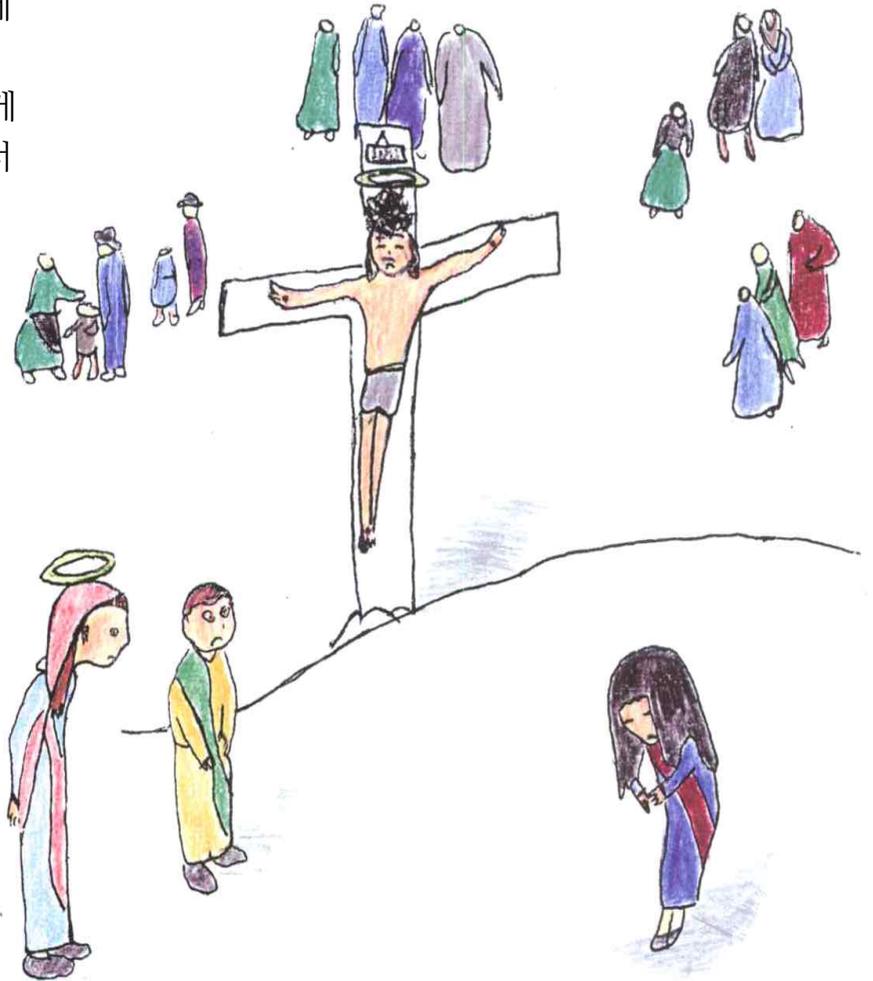
캐시, 메리와 또 한 명의 메리, 조운, 줄리아너, 팻 및
다른 여러 산 제물인 영혼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과 루이사 피카레타(1865~1947)의 저서를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적 논술이 아
니라 필자의 소견(所見)을 털어놓은 것이니, 하느님 뜻 영성의 빛에 비추어 읽으시고, 다른 이
들에게도 원하는 만큼 많이 구입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필자 세븐드롭스 적음

이 그림은 못 사람들의 눈에 매우 익숙한 광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탈리아의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사람에게 알려 주신 사실인데,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과 마리아님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을 제외하면 (그 당시) 온 세상 어디에도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신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곧 하느님의 뜻이십니다. 하느님이신 그분의 본성에 의해 그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신 것은 은총, 곧 (하느님의) 선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두 분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알려면 아담과 하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원죄를 범했을 때, 그 심각한 추락과 더불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만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과 식물이 - 모든 것이 -
 그 뜻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마다,
 걸음을 옮기거나 미소를 짓거나 말을 하거나
 그 하나하나의 행위마다,
 그들의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자신의 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꺼이
 하느님의 뜻 안에 녹아들게 하고,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행위와 말과 생각이
 모든 면에서 하느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부적(注賦的)인 지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이 이성의 사유 작용을 통하지 않고 얻는 지식, 곧 하느님께서 부어 넣어 주시는 지식입니다.)

예컨대, 그들은 말(馬)을 보고 그 안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말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조물들을 지어내신 까닭**과 그들이 지닌 **특성 및 그 용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좋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겪지 않는 면제의 특전도 받았습니다.

곧 고통이나 굶주림이나 불행 같은 것은 전혀 겪지 않았고, **완전한 행복만**을 알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불사불멸의 존재**인데다 늙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신적인 행위들이었기**에 실제로 그들에게 더 많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토록 아담과 하와는 신적인 무결함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속 생각에는 모든 것이 **완전한 질서와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선이 아닌 것,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행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조물**을 - 모든 동물, 공기, 식물 및 이 땅 전체를 - **지배**하였고, 모든 조물은 그들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동물과 식물과 바람과 물과 그 밖의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식물과 동물과 다른 것들은 그들 **자신의 뜻**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고,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뜻도 소유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 그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뜻만으로 살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점이 변하고 말겠지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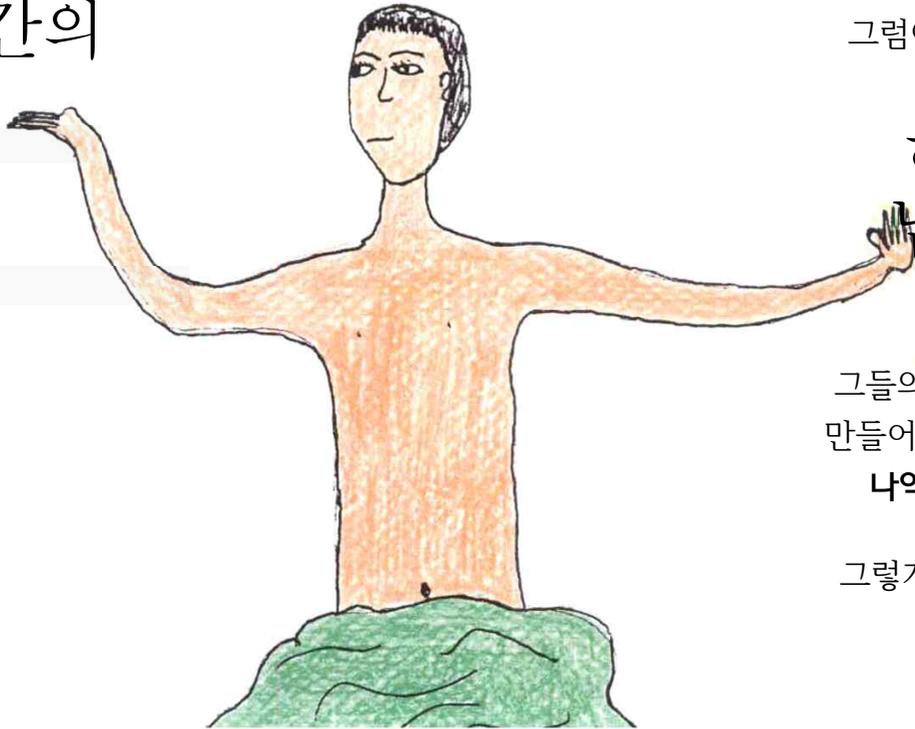
● 인간의 추락과 그 전말(顛末) ●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기에
하느님께서 시험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과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들을 다 그들에게
말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뜻



하 느 님의 뜻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知善惡樹)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그러지 말라고 하신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느님의 뜻을 써서 걷거나 말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그 모든 것을 했던 그들이 이제
‘하느님 뜻의 나라’ 밖에서 처음으로 그들 자신의 뜻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들과 그 후손인
우리에게서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의 뜻은 여전히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하느님 뜻은 하느님과 같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안에 남아
그들의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뜻뿐이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뜻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과 분리되어 활동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하느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가자마자
나약하고 변덕스럽고 무질서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뜻이 홀로 하늘의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그 선물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것의 좋은 열매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부어 넣어 주시는 지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고, **고통과 불행**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노화 현상도 시작되어 **죽음을 맞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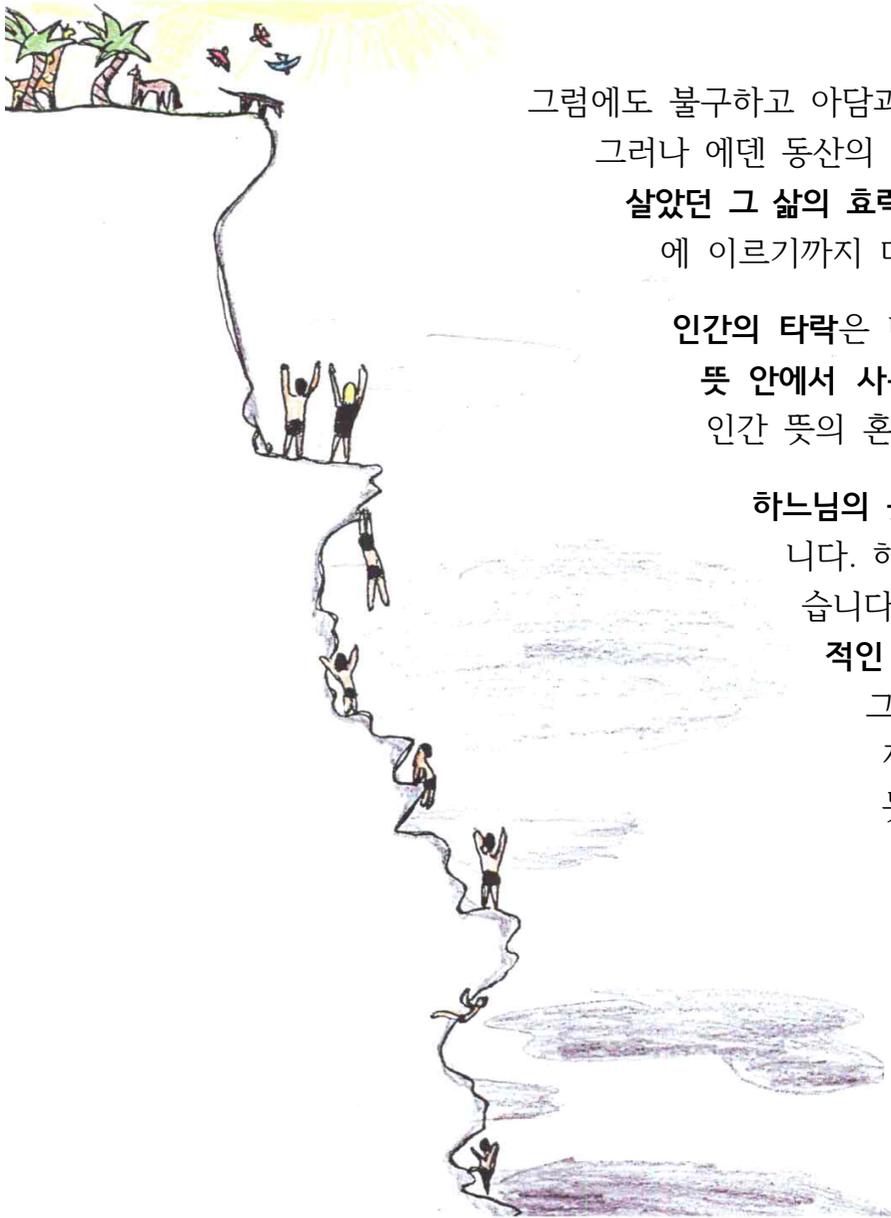
그러자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것을 원하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뜻의 빛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라지자

그들 주위에 동물이 더 이상 떼 지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조물이 달아났고, 식물도 그들과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조물들은 여전히 하느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럴 수 없었으니, 그들은 이제 다른 피조물과
화목하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전적으로 유보된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니,
하느님께서 다시는 당신의 작품들을 즐기실 수도,
아담과 하와와의 때 묻지 않은 즐거움을
누리실 수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매우 오래도록 살았고, 매우 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삶을 잃게 된 이후부터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의 효력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바로 이것이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드높은 삶에서 인간의 뜻 안에서 사는 천한 삶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수록 더 깊이 인간 뜻의 혼돈 상태(chaos)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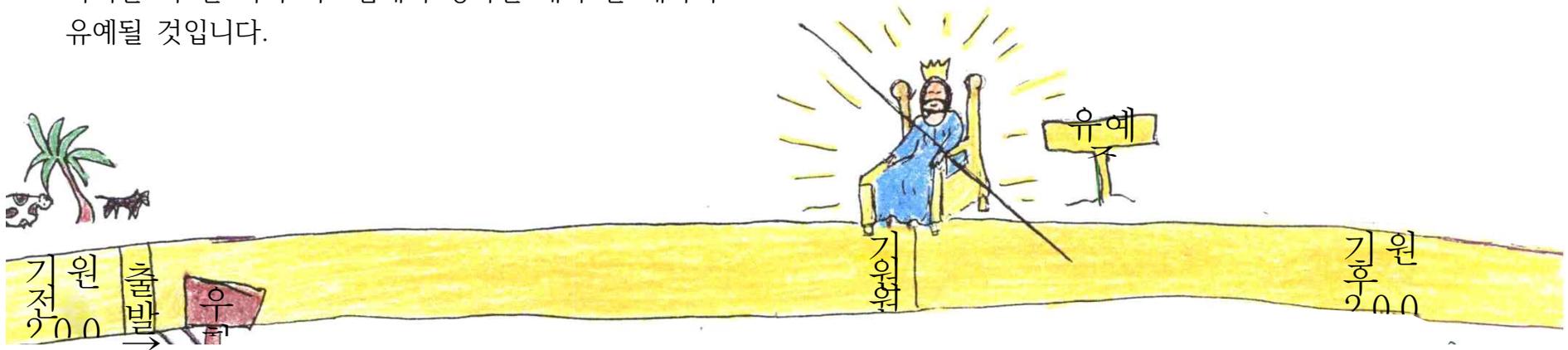
하느님의 뜻은 여전히 인간의 숨과 심장 박동과 신체 활동을 지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과 생각과 행위에 관한 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소유요 지배자여서, 기껏해야 자기네 **인간적인 뜻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을 잃고만** 인간이 지난 6천 년 동안 살아 온 모습입니다. 아직 그 선물을 다시 받지 못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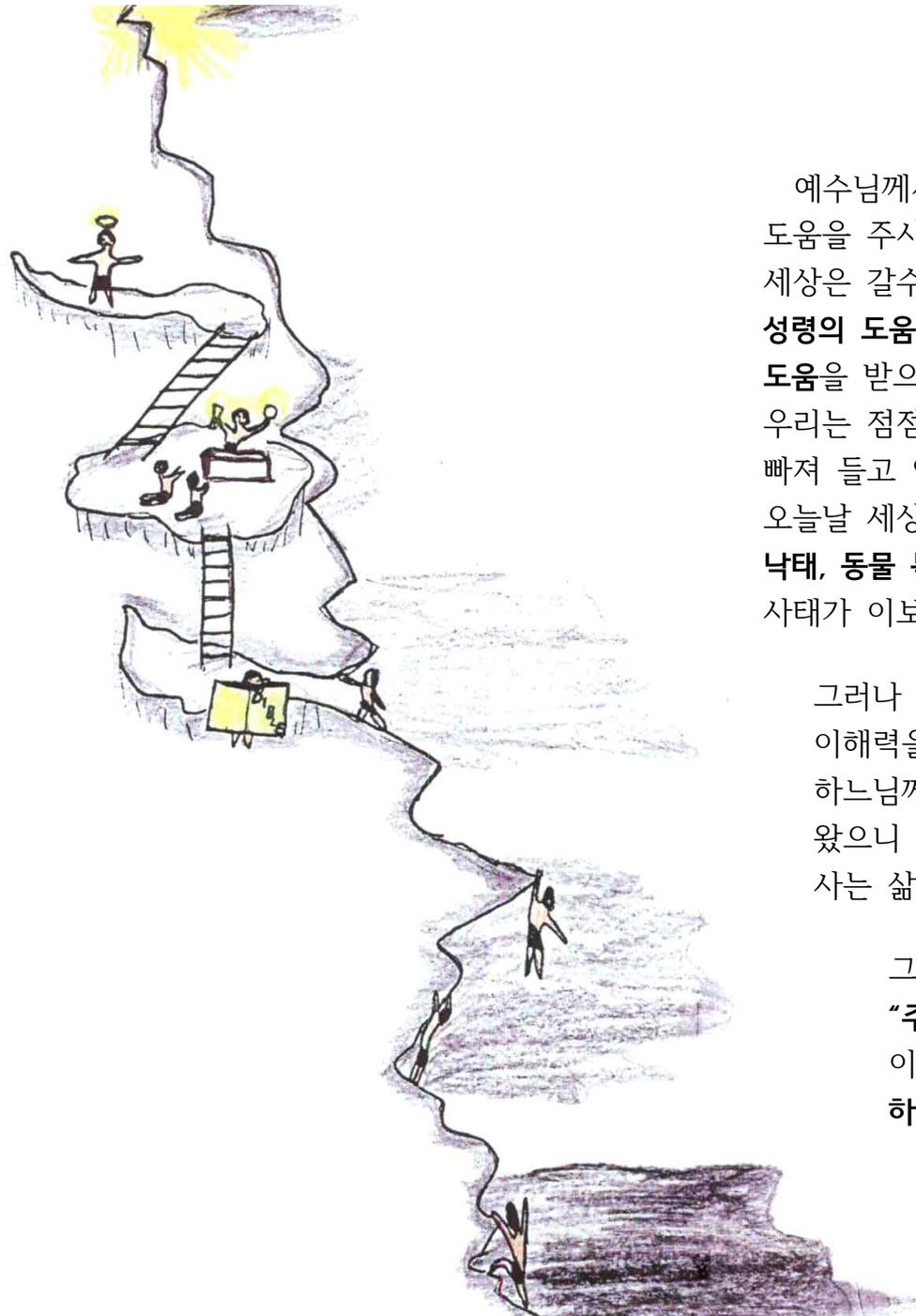
하느님의 창조 목적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계획이 몇 천 년의 **잠정적인 유예 기간**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6천 년이 된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따르기를 원하신 길을 놓아두고 우리가 멀리로 돌아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6천 년간의 우회를 찬찬히 훑어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버리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원래의 계획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보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백업(backup) 계획은 갖가지 도움들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역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하느님의 뜻을 써서 갈 수 없는 길인데다, 이 길에서 벗어나도록 **사탄이 갖가지 비루한 속임수**를 다 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대한 도움**은 바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 주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수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하느님 뜻이라는 선물을 되돌려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하는 **은총의 통로**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임금님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은 오시어 **깜찍한 죽음**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임금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유예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가 그 우회로를 따라갈 도움을 주시려고 수많은 선물을 남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움과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낸 지 2천 년이 넘었건만,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인간적인 뜻의 혼돈 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낙태, 동물 복제, 살해, 노쇠 촉진 및 전쟁, 동성애, 이혼 등 사태가 이보다 더 악화될 수 있을까 싶어질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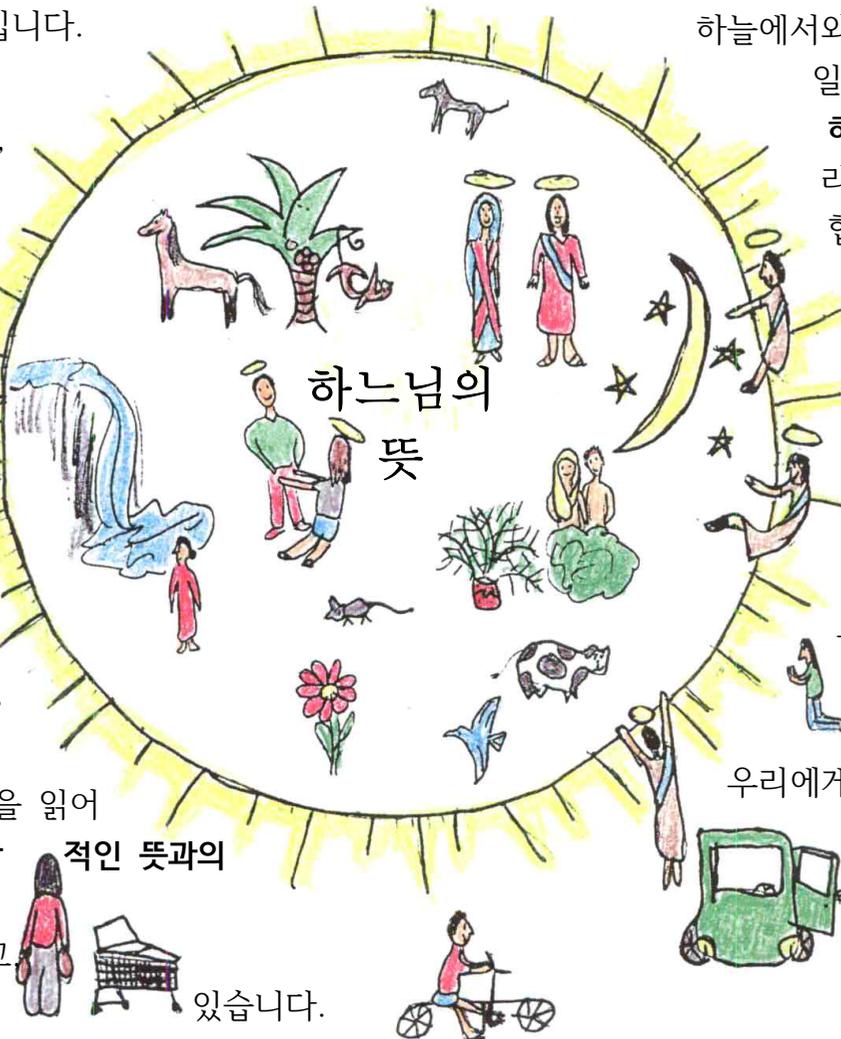
그러나 지난 2천 년 동안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이해력을 얻었습니다. 다수의 선한 그리스도인들과 성인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에 의해 그분의 뜻을 실행**하려고 힘써 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2천 년 동안 지상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쳐 왔습니다. 이 기도 안에 **하느님 뜻 선물의 신비와 하느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유일한 기도인즉, 이 사실 때문만으로도 우리가 그 낱말마다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뜻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면, 아무리
애써도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소수의 성인들
만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지만, 이 성인들에 대한 글을 읽어
보면, 그들의 삶은 곧 자기네 인간
적인 뜻과의
부단한 투쟁이었습니다. 천국에는
하느님의 뜻과 투쟁하는 이가 없고
누구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재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하려고
2천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까요? 이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라는 선물이 하느님의 계획과
합치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기도
하시면 아버지께서 들어
주십니다. 이제 2천 년이
지났으니,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가 된 것 같고,
교회도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미 그 선물을 받았
습니다. 하느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되었음을 보신 하느님께서서는 나자렛의 **겸손하고 작은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메시아를, 곧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백 년도 더 전에 하느님께서 “주님의 기도”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탈리아의 **겸손하고 작은 소녀 루이사**에게 나타나시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물로 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루이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에게 수없이 나타나셔서 은총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루이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비우게 하셨고, 인간의 뜻이란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이사가 **자신의 뜻을 버리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64년이 넘게 그녀에게 나타나셨고,

그녀는 그 기간 내내 침상에만 붙박여 지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거의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복된 성사만을 영했**을 뿐입니다.

학력이라곤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하느님의 뜻에 대한 글을 쓰고, 쓰고,**

또 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노동과
저의 노동을 제
사랑과
함께 아버지께
바칩니다!



루이사는 82세까지 살았고,
예수님께서 제목을 정해 주신 책 36권을 썼는데,
그 제목은 “천상의 책”입니다.
(그 전후에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느님 뜻의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하느님께서 루이사에게 그 선물을 주셨기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이 삶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효과와 가치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루이사가 심히 꺼린 것은 그분과의
사적인 대화에 대해서도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화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또 다른 책들도 쓰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는 당신의 수난과 복되신 어머니에 대한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외적으로 행하신 것**, 즉,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이집트로 피신하신 일, 예수님의 복음 선포,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들, 그분의 죽음과 부활 및 다른 여러 외적인 것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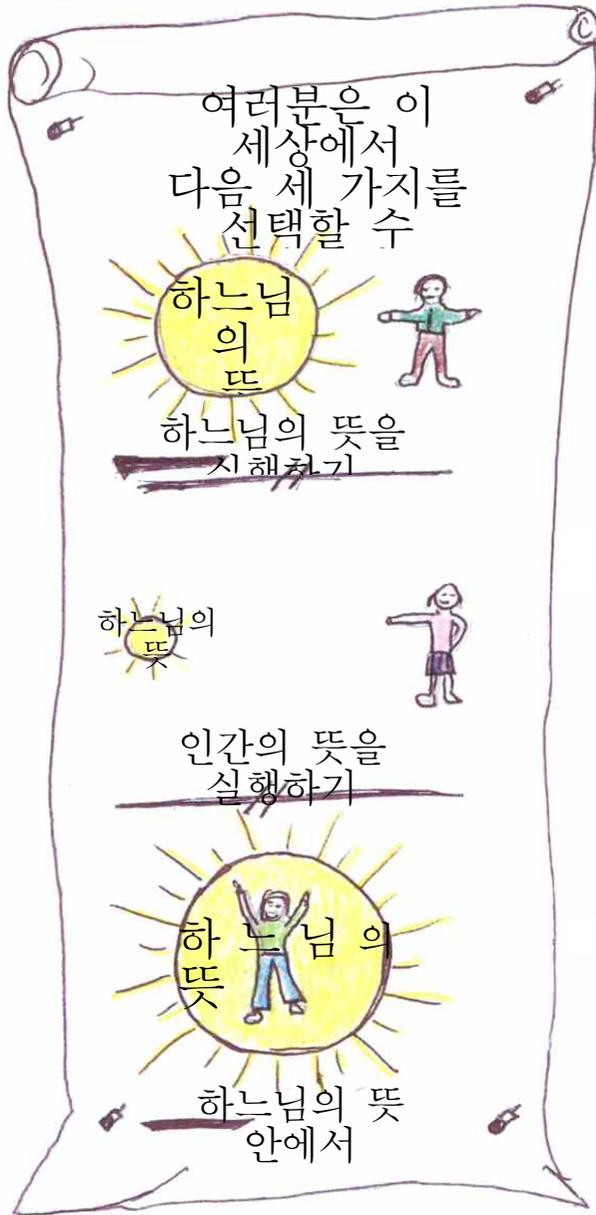
하지만 예수님과 마리아께서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하시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내적인 것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들이 자기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내적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워 익힌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들은 저 선물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에게 **그 선물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선물이라면, 받아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큰 선물에 대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면,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선에 마음을 연다면**, 그 선물이 널리 알려지며 전파되어 (하느님 뜻의) 나라가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집을 깨끗이
치우려고
비질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집
청소를 하는
모든 어머니와
주부들의 활동을
아버지의 영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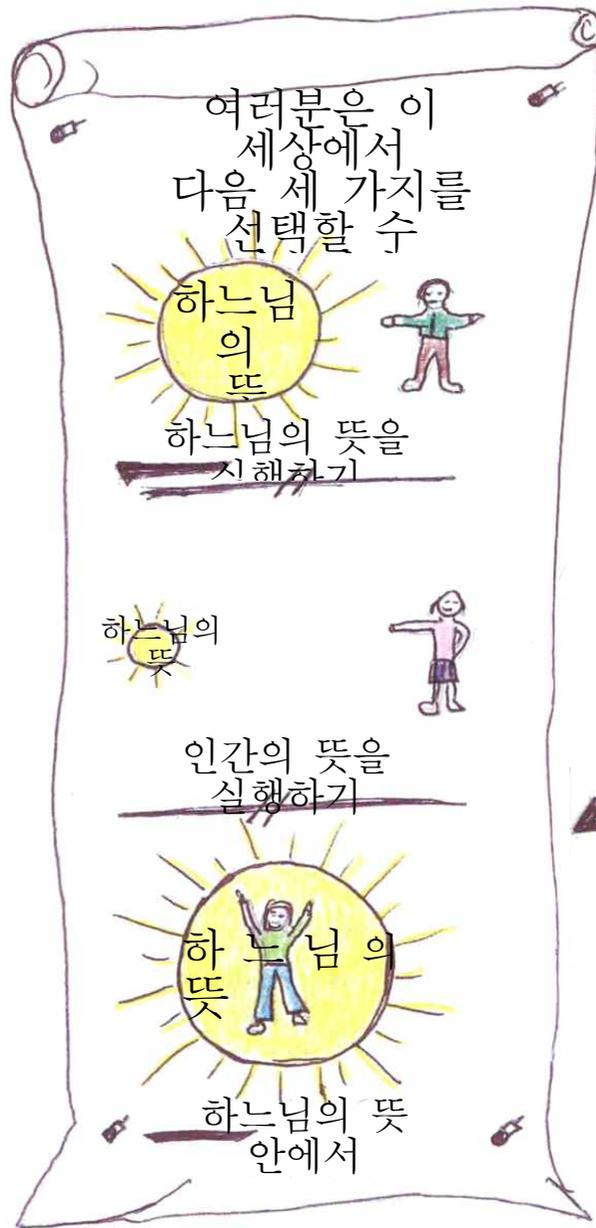


루이사가 하느님의 뜻 선물을 받기 전,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거나 그들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중요한 일은 이 세 가지 선택의 차이점을 알아 두는 것입니다.

첫째 그림의 소년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힘쓰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선물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의 뜻은 소년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의 뜻은 안 계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이 행하는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그 자신의 인간적인 뜻입니다. 그 자신의 뜻의 활동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하여 그것을 수행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큰 어려움을 겪으며 불완전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의 인간적인 뜻은 원래 하느님의 뜻과 따로 떨어져 활동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양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궁금해 하곤 합니다. 또 안다고 여겨질 때에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흔히 투쟁을 거듭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의 그런 활동은 하느님께 별로 큰 영광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이 소녀는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시기에 이 소녀 안에도 계시지만, 소녀는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소녀의 인간적인 뜻이 그녀가 행하는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이 소녀의 활동에 의해서 모욕을 받으십니다.

물론, 어떤 이는 어떤 시기에 이런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루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힘쓰고, 이튿날은 관심이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에서 따로 떨어져 활동하는 인간의 뜻은 약하고, 변덕스럽고, 항구성이 없고, 무질서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선택, 곧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로 넘어갑시다.

이 소녀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소녀의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그녀가 행하는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도 소녀의 인간적인 뜻은 남아 있지만, 이 뜻의 유일한 활동은 자기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예.” 하며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과 투쟁이 사라지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데서 오는 평화가 넘쳐흐릅니다.

하느님께서도 완전하고 한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활동이 저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니, 이러한 것이 그분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느님, 제가 당신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을**
참으로 원한다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돌아와서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기를,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낙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
 그분께서 받아 마땅한 **완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본디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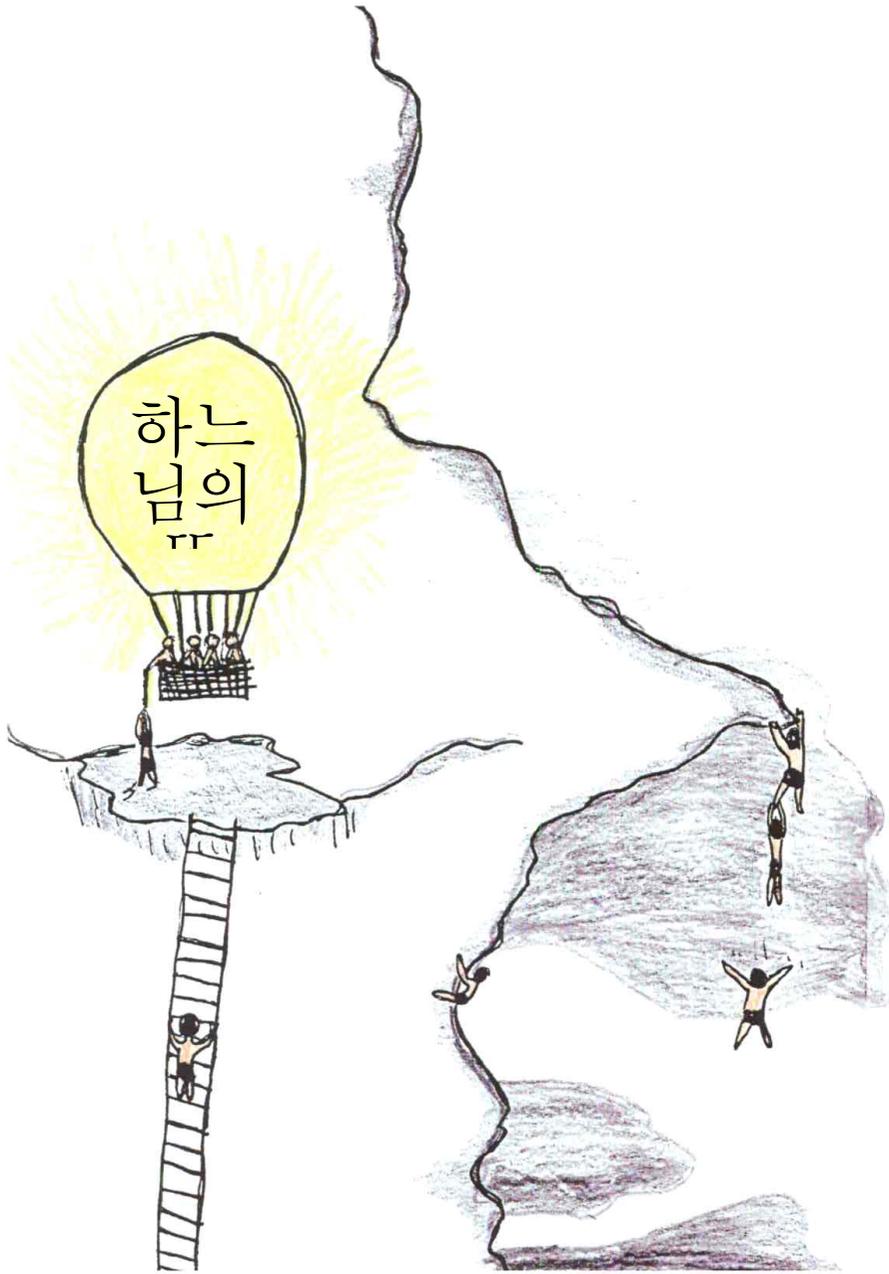
여기에 그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간절히 청하십시오!

“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청하오니, 부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바치게 될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 더는 자신의 뜻을 쓰지 않고 그분의 뜻을 쓰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걸었던 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대단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지상 낙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모험**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이 선물에 **충실히 머물면**,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큰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라신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이니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이 선물을 간청한 다른 사람들 역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하느님 나라가 오시도록 하는 일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 시작한 초기부터 자기 자신이 **완전하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하느님의 뜻이 그대를 하느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채우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가 늘 자신의 뜻을 써 왔으므로 한 순간에 뚝 끊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즉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는 그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선물 안에서 **천천히 성장**하기를 바라시니, 그것은 우리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특히 **초기 단계**에, 거듭 잘못을 범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망에 빠지지 않는 마십시오. 하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중대한 잘못이면 **고해**하러 가십시오. 그런 다음 저 선물을 주십시오고 다시 청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거듭 주시고 또 거듭 거듭 주실 것입니다. 그저 그분을 **신뢰하면서 계속 청하십시오.**

한 순간도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행하느라고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하느님께서 그대에 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더디지만 확실하게

하느님께서 그대를 **정화**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고 있기에,

그분께서 그대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와 악습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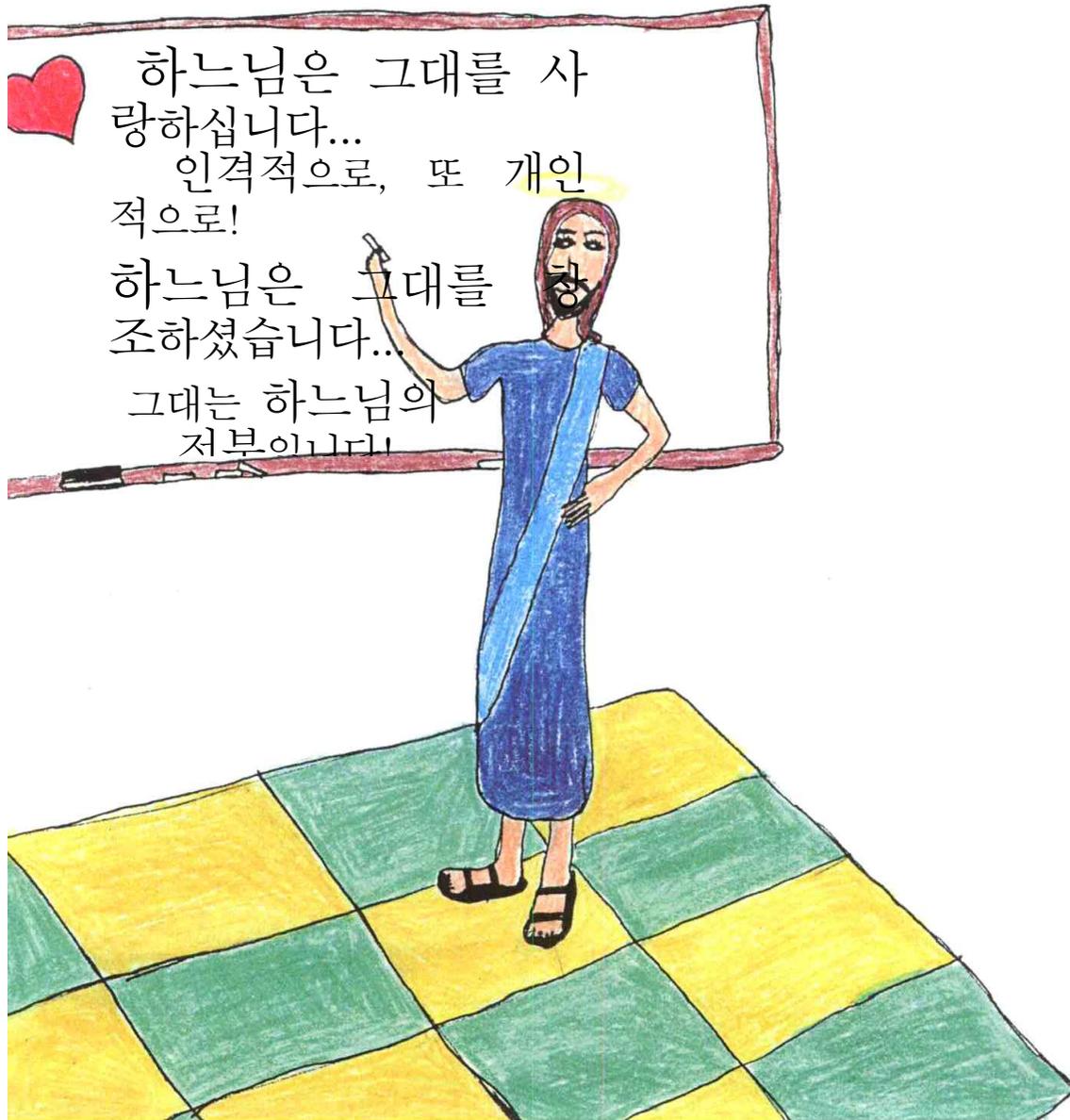
그렇게 하시면서 그대를 **그분 속성들로**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것은 제거하고,
 좋은 것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례로 ‘교만을 제거하는 10단계 교육’을
 그 프로그램대로 시작하는 대신,
 그저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그 일을 다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자신이 갈수록 **죄를 덜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덕**으로 데려가시는 중이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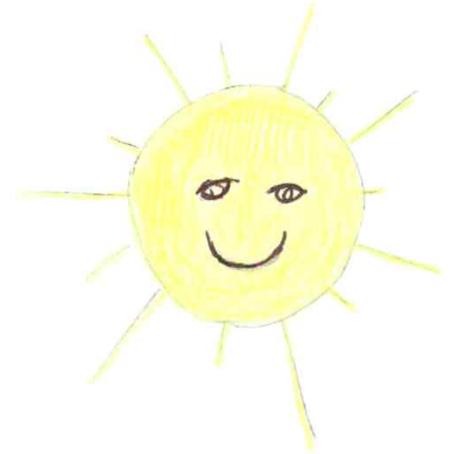
그렇게 **정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하느님께서 다른 일도 하시리니,
 그대를 천국에 들어갈 만하게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직도 그대를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천상적인 사물에 대해 설명하시며,
세상과 사탄이 그대에게 하는 거짓말들을
 치워 버리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정면으로 직시합시다.
 천상에서는 그 누구도 돈이나 재물이
 행복을 얻게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자기 자신의 뜻 안으로 물러가는 때를 제외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대가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더라도 '지상 낙원' 속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한 번에 조금씩, 그 방법을 가르쳐 주마.”
 그대가 진실로 저 선물을 원한다면,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 꼭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느님의 생명이 그대 안에서 자라나심에 따라, 그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어쩌면 기적적인 일을 체험할 지도 모릅니다. 루이사는 생애의 끝 무렵 자기 고해사제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 고해사제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또 어쩌면 공중의 새들이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대의 어깨 위에 앉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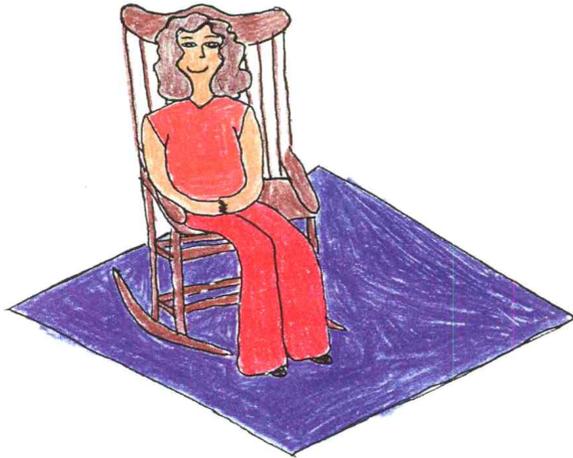
그렇지만 기적을 찾지는 마십시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행하는 나날의 행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행위가 이제 하느님의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뜻을 써서 하는 행위들이기에,

예수님께서 몸소 하시는 것입니다.



루이사는 단순하고 작은 자신의 행위가 거룩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행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록 사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행되면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만들어 내신 하느님께서서는 또한 아주 작은 씨앗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대의 하루는 외관상 아주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처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경우, **하느님의 뜻이 그대가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일을 그대 안에서 하시도록, 하루에도 여러 번 부르며 찾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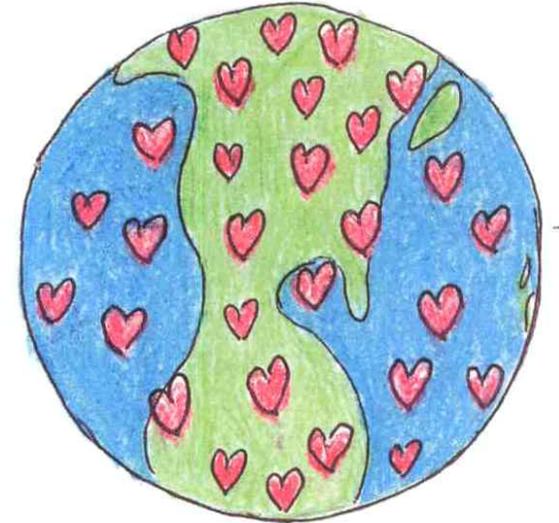
즉, **하느님의 뜻이 그대의 모든 행위에** - 세수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등 모든 행위에 -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점**, 그리하여 그대의 그 모든 행위들이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선물 안에 **성장하면**, 자기 자신에게 하느님 뜻을 그런 식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종일토록 **끊임없이 그 거룩하신 뜻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자신의 생명으로 그대를 가득 채우시기에, **그대는 그대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뜻을 알아챌 뿐더러 실감도** 할 것입니다.

루이사는 이 하느님 생명 안에서 그녀의 팔을 들어 올리시는 예수님을 실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나자렛의 작은 집에서 성 요셉과 예수님을 돌보셨던 복되신 어머니의 단순한 행위들은 모두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그대도 이제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 이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선물입니다. - **그대의 가정이 나자렛의 작은 집이 될 것이고, 숨을 쉴 때마다 매번 거룩한 행위를** 수없이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행위는 **무한한 행위**입니다. 이 땅 위에 그런 행위가 수행되면, 마치 폭발이 일어난 듯 그 **빛이 사방으로** 무한히 발산됩니다. 창조된 만물이 이 폭발 현상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무한하고 거룩한 이 행위들이 지상의 모든 사람 위로 퍼져 나가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네 **세상을 한층 더 호의적으로 보실** 것입니다.



하느님으로 하여금 아드님을 메시아로 보내실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게 한 것은, **마리아께서 한평생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행하신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땅에도 오시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이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선물을 다시 받게 되었지만, **그 전 성인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선하고 경건하지만 **인간적인 행위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무한할 수 없는 행위 - 타락한 세상을 뒤덮고 있는 창조된 만물 위로 퍼져 나갈 수도 없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인간적인 뜻의 행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행위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한 행위를 하면**, 천사들이 그 행위를 아버지의 어좌에까지 가져갑니다. 아버지께서 한없이 기뻐하시며 이를 모든 피조물 위로 굽이치며 퍼져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의 복된 이들과 천사들은 더 큰 영광을 받고, 연옥 영혼들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위안을 얻고, 모든 조물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거룩하기에 한 행위가 다른 행위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뜻 안에서 수행된 행위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대가 **자기의 방 청소를** 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과 은총의 물결을 보내시게 합니다. 또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성체를 영하면**, 모든 영혼 위에 이 성사의 은총을 쏟아 부어 주는 것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은,
 그대가 오늘 성체를 받아 모시러 가면, 더없이 흉악
 한 **죄인들도 성사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청한 적이 없으며, 자기들이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은총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왠지 모르겠지만 **전보다 덜 타락**하게
 됨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기가 위에서 부여지는 은총에 응답하는 것은 **각
 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처음
 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죄가 되는 삶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많은 행위들이 일으키는 뜻밖의 **은총이 물결을 이루어** 계속 들이치면, 마침내 일부 사람들은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행된 행위들이 일으키는 그 은총의 물결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목격할 것입니다. 성경 속 예언자들은 세상이 천 년 동안 맞볼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란 선물은 이 시대를 맞아들이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도 정화하는 선물로서 **'지상의 하느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 외에 **이 뜻 안에서 바치는 기도도 하느님 나라를 맞아들이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대의 모든 행위들처럼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몸소 바치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이루신 모든 업적을 돌아보며 그분께 찬미와 흠숭과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영적) **순례 행위들이 바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 목적은 하느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이 순례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개개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각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할 행위들도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많은 수의 행위들로서, 당사자가 행할 마음이 전혀 없어도 영원히 존속할 행위들입니다. 그런고로 각 사람은 몸과 혼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그가 취하기를 기다리는 행위들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선물을 잃어버린 후, 그 창조된 행위들을 자기네 인간적인 뜻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분께 영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순례 여행으로 때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6천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행한 행위들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삼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선물로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했으나 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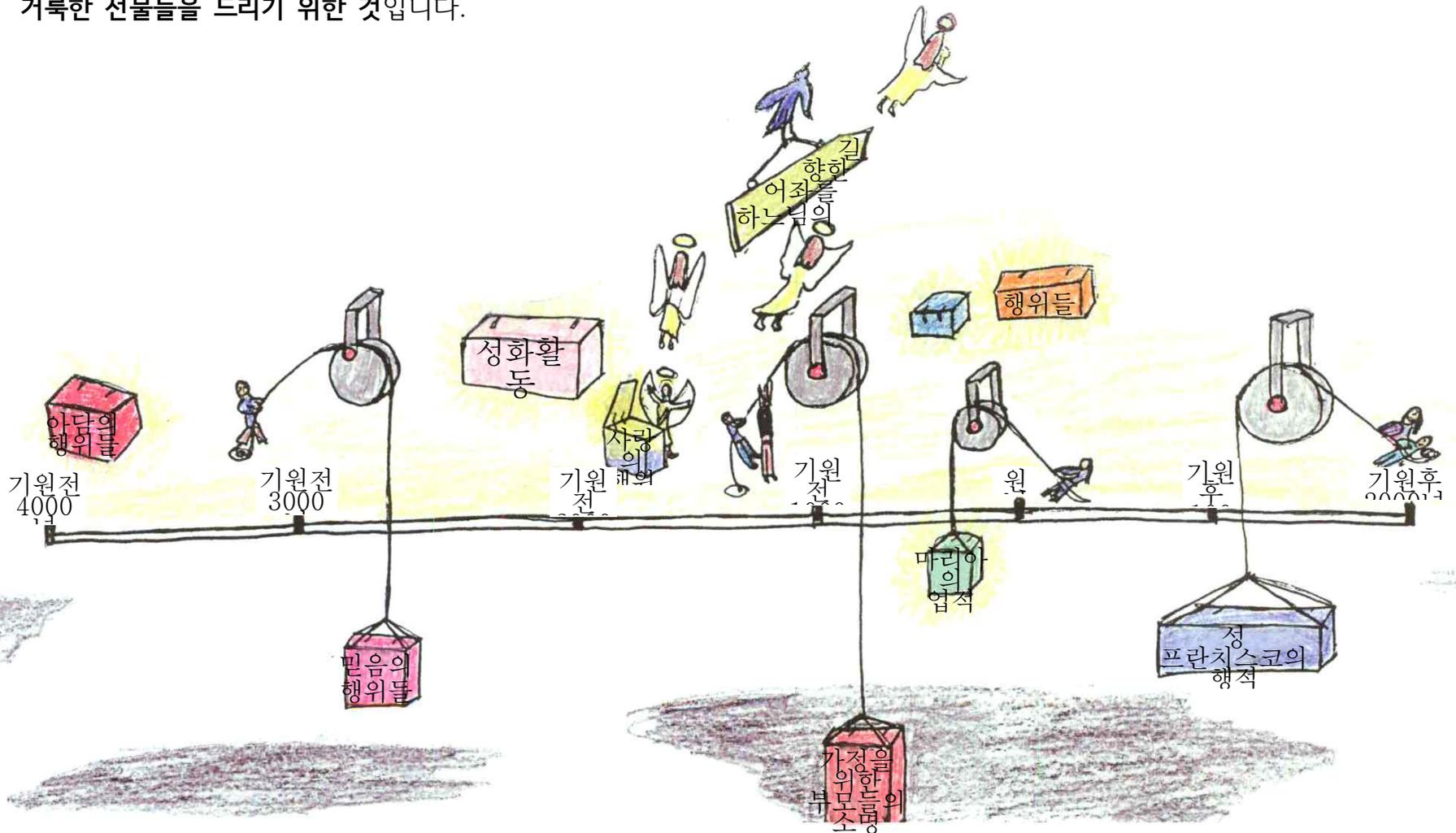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에덴동산의 추락 사건이 일어난 후 예수님과 마리아와 루이사 및 하느님 뜻의 아들딸 (곧 여러분)의 행위들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인간적인 뜻으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한데 어떤 성인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느님께 합당한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지 않은 채 그냥 둔 행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들이 그 대신 악행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완의 행위들이 시간 속에 유예된 상태로 여전히 있으니, 우리는 그 모든 행위들도 취하여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순례를 통한 이 활동은 지난 6천 년간 아버지께서 받지 못하신 거룩한 선물들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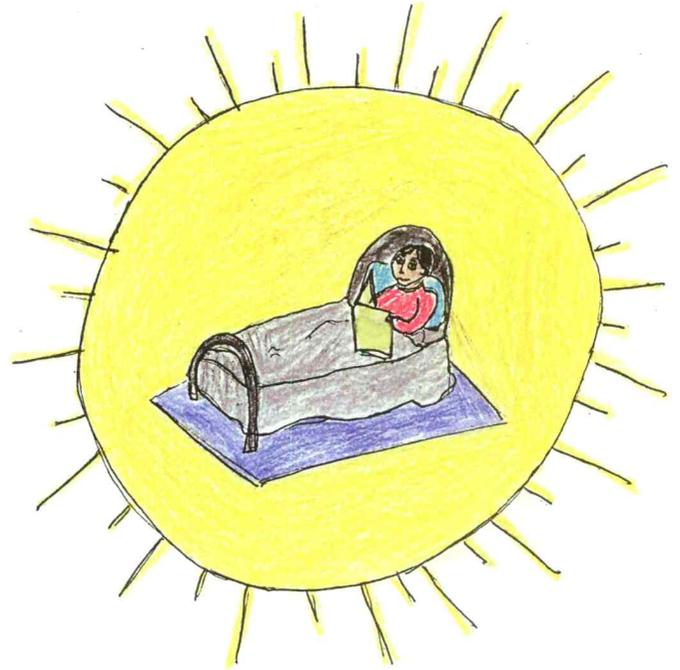
그대도 이 **순례를 그대 자신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사 참례 중이라면, 독서에 언급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성인의 축일이라면, 그 성인의 모든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잔디를 깎는 중**이라면, 일찍이 자기네 집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 안으로** 가져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하느님의 뜻 안에 있으니, 하느님께서 그대 및 그대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대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순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루이사의 창조 순례**가 포함된 책들 중 한 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루이사는 창조의 일곱 날을 통한 순례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구약 성경, 예수님과 마리아의 삶 등을 덧붙입니다. 이를 읽으면, **루이사와 함께 순례**를 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리고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행위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뜻의 효용으로 **그분들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 아버지께 다시 바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를 거듭거듭 다시 받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기에, 연이어 밀려드는 물결처럼 은총에 은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은 바로 **하느님 자신의 창조 행위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더욱 큰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다시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종류의 순례가 있는데, 이는 모든 조물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 및 그들의 자손들이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사제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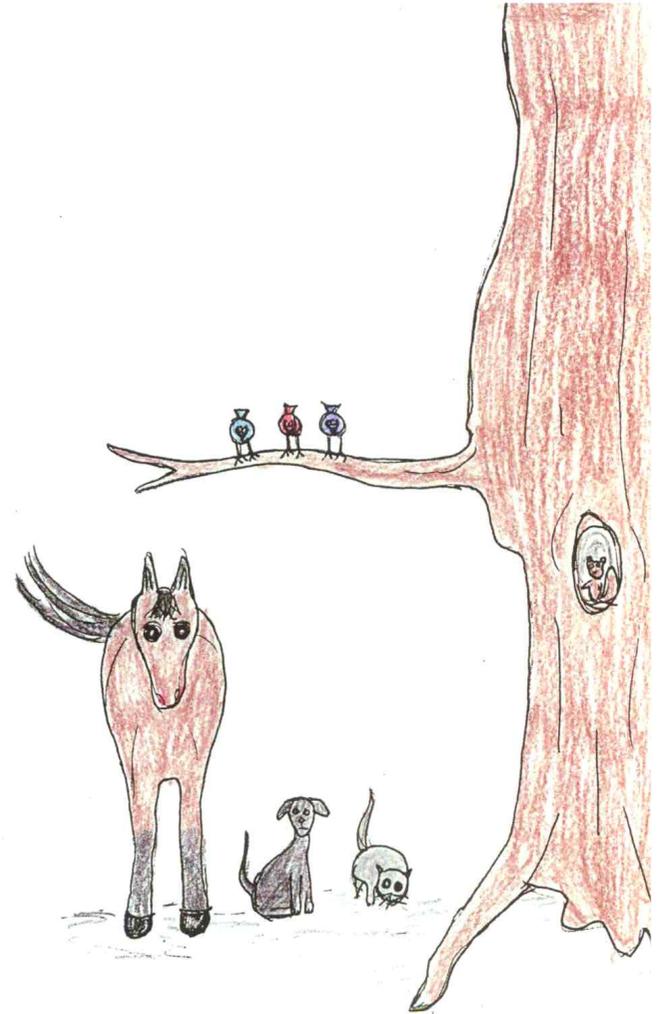
새, 짐승, 바위, 물, 별과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의 목소리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선물을 잃자 더는 사제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이 되었으니, 어떻게 모든 피조물을 위한 사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잃었던 선물을 되찾은 이제, 우리는 다시 사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례들을 통하여 새, 물, 나무…… 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넣고, 그것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사랑과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이외의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하느님의 속성들을 반영하는 그들의 아름다움, 힘, 거대한 크기, 찬란한 광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창조된 만물은 따라서 가장 큰 별에서 가장 작은 씨앗에 이르기까지 과거 6천 년 동안 하느님 뜻의 자녀들을 기다려 왔습니다. 아버지께 완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새가 만약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하느님의 영광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제가 날개를 칠 수 있게 공기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지어 내신 이 나무는
제가 등지를 틀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또한 흠을 부드럽게 하는 단비를 내리시어,
촉촉하고 통통해진 벌레들을
찾아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위로
높이 날아오르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제로서 이와 같이 그 새 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넣어, 새가 마침내 하느님께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순례 기도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으니, 바로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어쩌면 그대는 이웃에 병자가 있음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텔레비전이 미국 군인 몇 명의 전사 소식을 전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대로 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고통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결합되기만 하면 구속력(救贖力)을 가지건만, 시간을 내어 그 고통을 아버지께 바치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가 보이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다음번에는 그것으로 이렇게 순례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바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어떤 고통도 허비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께 바치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은 죄에 대한 보속과 연옥 영혼들을 위한 보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 이를테면 누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일 수 있기에 그 병의 치유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대는 언제나 기도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그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모든 영혼의 선익을 위하여 활용**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런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대단히 비참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한없는 선을 가져온** 그대는 언제나 큰 평화를 느낄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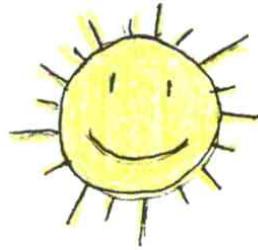
여러분은 하느님 뜻 영성의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이렇게 자문(自問)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 안에 불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마리아님의 행위를** 어떻게 우리 자신의 행위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든 피조물 안에 넣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수행되어 왔고 또 수행될 (온 인류의) **행위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남의 고통을 어떻게 하느님께 바칠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본질이고,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디든지 계시기에 여러분도 어디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을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여러분의 집이나 학교에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피조물 안에** 있습니다. 나무들과 별들 안에, 다른 사람들 안에, 연옥 영혼들 안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든 조물 안에 넣을 수 있고 모든 행위들을 소유하며 이 행위들을 한없이 불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순례의 지침



모든 것이 창조물의 일부이므로 여러분의 **순례는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편적인 성격을 띤 순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제 것으로 삼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것을 **제 사랑과 함께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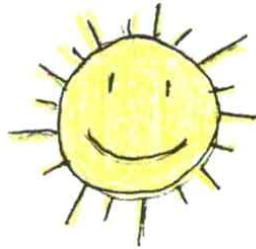
또는 이렇게 특정한 것을 순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에 제 목소리를 넣고** 이 빗방울들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 아버지께서 지난 6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받으셔야 했으나 받지 못하신 모든 것을 - 아버지께 드리기 시작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은 그 동안 사람들이 아버지께 바로 가지 않고 멀리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례 여행을 하는 것이 다소 너무 복잡해 보이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십시오.
실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피조물 중 일부를 자기 것으로 삼거나 그들 안에 자기의 목소리를 넣습니다.** (예컨대, 새들, 꽃들, 하느님이 별들을 빛으신 순간,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 성인들의 행위들, 모든 자녀들의 목소리들...)
2. 그들 속에 그대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넣으십시오.
3. 이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바칩니다.
4.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바칩니다.
5. **'나라'가 오시도록** 청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6천 년 동안 먼 데로 빙 둘러가는 길 위에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원래의 길로 가는 중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느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분께 드린다면, 그분은 '나라'가 오시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단, 하느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란 **모든 이가 마땅히 바쳐야 할 영광**을 뜻합니다.)

그대의 기도를 '진짜' 순례로 만들려면 위의 말을 전부 써야 하겠지요?

말할 것도 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를 시작할 무렵에는 그 중 **상당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실행 중인 강력한 활동, 곧 (순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기 자신의 순례를 개발**할 일입니다.





이제 하나의 **단순한 순례**를 해 보기로 합시다. 야구 시즌 마지막 경기 중 그대가 1루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대는 지금 1번 타자가 타석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대가 하느님의 어좌 쪽으로** 야구 선수들(과 그들의 활약들을 모은) 거대한 더미를 밀고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상의 더미**에 야구, 미식 축구, 축구 및 농구 선수들의 모든 활약도 던져 넣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결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는 타자가 첫 스윙을 하기 전에 이미 순례를 한 번 행한 셈이 됩니다.

그대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한 것입니다.)

- (1)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든 활동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 (2) 그 위에 그대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찍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 (3)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대와 예수님께서서 하느님의 어좌 쪽으로 그 더미를 밀고 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 (4)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시는 법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 (5) **‘나라’가 오시도록** 청했습니다. (그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 더미를 밀고 가는 것은 단지 재미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그러한 (영적) 행위가 곧 예수님과 함께 도움을 주어, **‘나라’를 맞아들이게 하려는 하느님 뜻의 행위인** 것입니다.)



1루에서는 순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타자가 다음 타자와 교체되는 동안, 또 상대방에서는 새로운 투수를 준비시키는 동안, **그대와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좌 쪽을 향하여 나무 더미를 밀고 갑니다.** 이웃집 개가 동물 더미도 밀고 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런가 하면 파리가 웅웅거리면서 그대에게 **거대한 곤충 더미를 만들** 생각을 하게 합니다.

타자가 몸에 던져진 공(hit by the pitch)을 맞았습니다.

그대는 그의 고통과 다른 이들의 부상과 병에서 오는 **고통의 거대한 더미를 아버지께 바쳐** 올립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아웃이 된 후 더그아웃(dugout: 야구장의 선수 대기소) 쪽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예수님께서 청소년 시절에 어떤 놀이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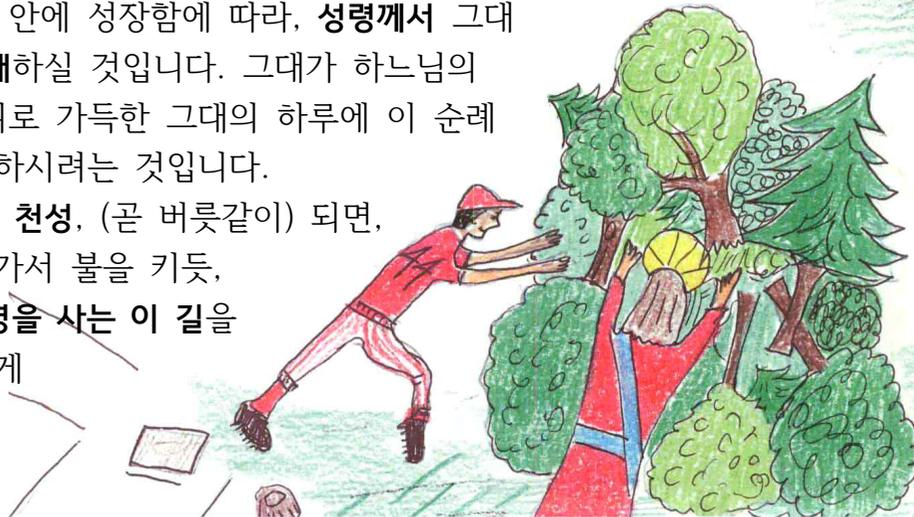
그래서 **그 시기에 행하신 모든 것을 쌓아 거대한 더미를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어좌 쪽으로 그것을 밀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와 같이 1루에서만도 여러 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야구 경기 도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디선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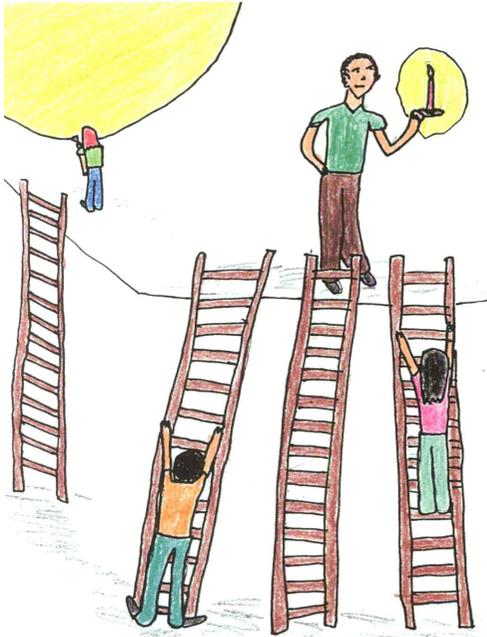
무엇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 성장함에 따라, **성령께서** 그대 자신의 **순례들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로 가득한 그대의 하루에 이 순례들을 보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순례가 참으로 제2의 천성, (곧 버릇같이) 되면,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키듯, 그대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이 길**을 환히 밝히며 안전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되도록 많이 읽고 많이 알아내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아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이 뜻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공유하시는 오직 하나의 뜻입니다. 성삼위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뜻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느님의 신성에 그만큼 더 깊이 참여합니다. 그러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기도) 운동과 신심들 및 수도회와 제(諸) 단체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사제운동'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를 점차 하느님 가까이로 데려가는 운동입니다. '성령쇄신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현존과 천상 분위기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들은 다 하느님께로 한 단계씩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사닥다리의 가로대 같은 운동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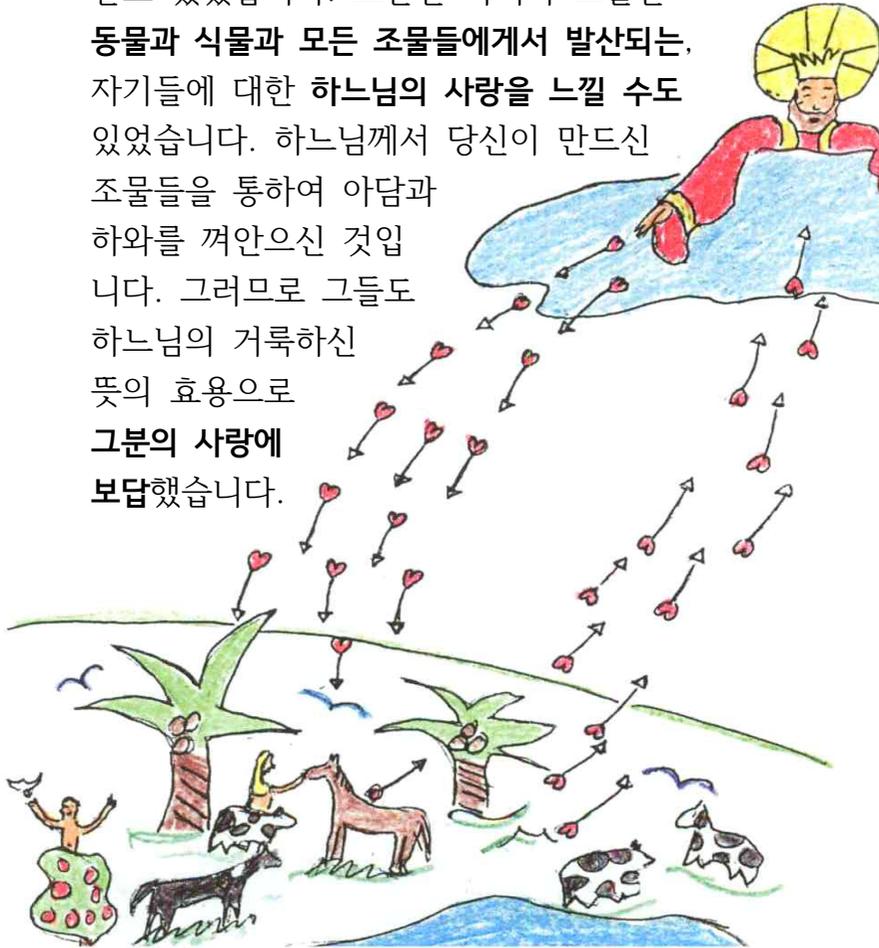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라는 선물은 사닥다리 맨 꼭대기 위에 있는, 더 높이 오를 곳이 없는 다락방 같은 공간입니다. 그대의 인간적인 뜻을 하느님 자신의 뜻으로 바꾸어 주시는 곳이니,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이 윗방을 탐색하는 일뿐인데, 작은 불빛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작은 빛이어서 구석구석 다 살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하느님의 뜻에 대해 더 많이 알아 갈수록 더 크고 더 밝은 빛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대도 기쁠 것입니다. 밝은 빛을 얻기 위하여 힘써 관련 서적을 읽고 순례도 자주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루이사와 나누신 것처럼 그대와도 하느님 뜻의 신비를 나누실 것입니다.

루이사의 책들이 나오기 전에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 배우려면, 누구든지 연옥이나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대는 이 지상에서 하느님 뜻에 대해 배우고 있으니 참 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천상의 가장 큰 성인들 안에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름답고 신기한 피조물에 둘러싸여 있었고,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즐겁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물과 식물과 모든 조물들에게서 발산되는, 자기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조물들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껴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의 효용으로 **그분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봅시다. 새 한 마리가 창 밖에서 지저귄 때, 한 줄기 미풍에 머리카락이 날릴 때, 따사로운 햇별이 얼굴을 어루만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생각할까요?** - 아마도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뜻과 죄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어찌나 멀리 떨어져 나갔는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하느님께 사랑의 보답을 드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지난 6천 년 동안 그 사랑의 보답을 받지 못하셨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들의 행위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순례들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사랑의 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순례들의 정체는 실로 이것이니,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그 사랑에 보답**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 **큰 평화**가 그대 주위를 둘러쌀 것입니다. 이는 보통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온갖 광적인 행태들이 주변에 널려 있더라도 이 평화를 흠어 없애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괴로운 정화를 겪으며 하느님의 정의에 보상을 바치는 때라고 하더라도, 그대에게는 **하느님 뜻의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사탄과 그자의 비루한 속임수들도 그대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놀라움에 싸이겠지요? 그대가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진실로 놀랍게도) **하늘을 땅으로** 가져옵니다.

한 가지 점만 제외하고, 마리아와 천상의 복된 이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점은 곧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는) **행위와 순례로 하느님 나라를 불러들이는 일에 협력**하는 것인데, 이는 천상의 복된 이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대 안에도 계시면서 그대의 손발과 목소리를 쓰십니다. 그대 안에서 **예수님과 그대가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그대가 그분과 같은 뜻을, 곧 그분의 뜻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가 **살아 있는 성체**입니다.

감실 안에 계신 성체와 꼭 같은 성체 - 그러나 손발과 팔과 목소리를 가진 살아 있는 성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손발과 팔과 목소리를 쓰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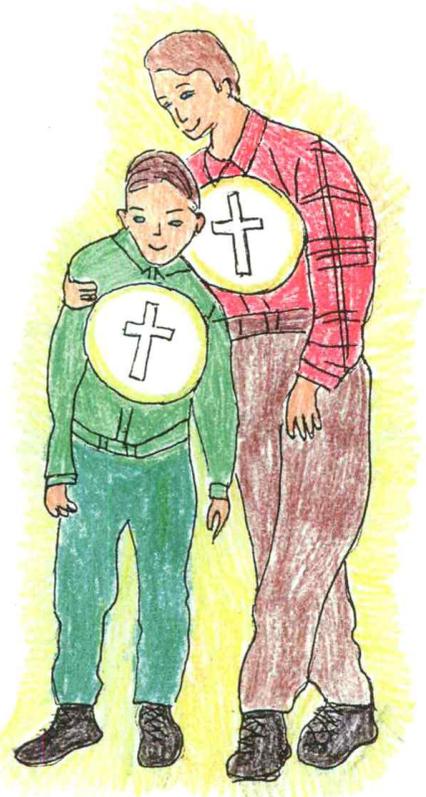
이 책 마지막 쪽에 ‘**하느님 뜻이 우리의 모든 활동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비는 간청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가 하느님 뜻 안에서 살기로 결심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살아 있는 성체라는 사실을 날마다 그대에게 상기시키는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에 오직 “예.” 또는 “피앗.”**으로 응답하십시오.

“피앗.”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피앗.” 또는 “예.”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그대의 “피앗.”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언제나 “예.”로 응답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죄악이 만연한 우리의 세상에서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삶을 처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서 **죄와 세속적인 것을 가져가시고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때때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대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딱히 모르더라도 오직 그분께 의지하며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온전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이 선물을 계속 보존하면,
그대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는 누구나 대단히 행복하니까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행위들과 순례 여행들이 행하는 선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 뜻 안의 행위를 하나 한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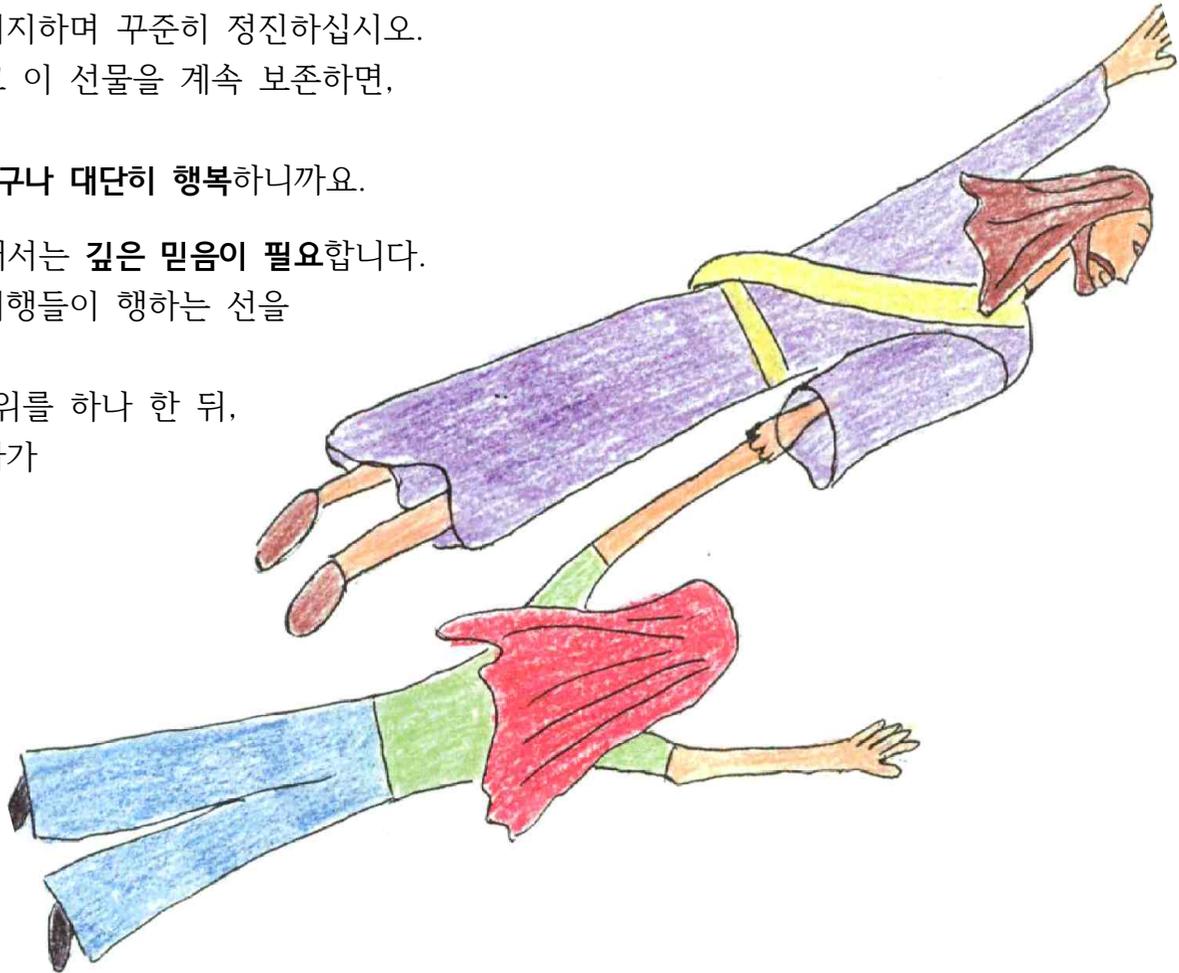
그것으로 인한 은총의 물결 하나가

세상을 어루만지며

휩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멋지겠지요?





그러나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뜻의 사명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부단히 루이사를 일깨우시며 “**주의를 기울여라.**” 하셨습니다.

각 행위와 각 순례는 저마다 다 중요합니다.

또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대는 그것들에 대해 생각만 해도 피로한 느낌이 들지 모릅니다.
루이사도 초기에는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과 순례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셨으니, 조물들 사이를 “날아다니느라고” 지치면, “**내 마음에 와서 쉬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을 주시며 원기를 북돋우어 주실 수 있도록,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분께서 루이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도 하던 일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뜻 안을 더 신속하고 더 광범위하게 날아다닐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나라’가 오시기를!

▣ 본문 내용의 출처와 참조할 곳을 적은 미주(尾註) ▣

이 책의 내용은 루이사의 저술과 하느님 뜻 영성 피정 중의 녹취 테이프와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모아 편집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 책 각 페이지 내용의 출처 내지 참조할 곳을 밝힌 것입니다.

루이사의 『천상의 책』 “몇 권 (몇 년 몇 월 며칠)”로 표기되어 있거니와, 완전히 다 찾아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뜻의 각 진리를 루이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사용하신 여러 보기나 비유들 중 일부에만 접근한 셈이니 말입니다.

밑줄 친 공란은 루이사의 『천상의 책』 중 새로 찾아낸 ‘참조’를 보태 넣을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낸 것들이 있으면 적어 보내 주십시오. 다음번 출판 때에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4쪽: 『천상의 책』 15권 (1922년 11월 28일; 1922년 12월 8일) 16권 (1923년 12월 8일; 1924년 2월 22일; 1924년 3월 13일; 1924년 3월 22일) 17권 (1924년 12월 8일; 1925년 5월 1일) 18권 (1925년 8월 15일; 1925년 11월 12일) 30권 (1932년 4월 30일) 31권 (1932년 9월 8일)_____

5쪽: 9권 (1913년 9월 21일) 12권 (1919년 3월 22일) 16권 (1924년 2월 24일) 17권 (1924년 10월 6일) 18권 (1926년 1월 28일) 20권 (1929년 10월 29일)_____

6-7쪽: 16권 (1924년 1월 14일; 1924년 2월 28일) 18권 (1925년 11월 12일)_____

8쪽: 16권 (1924년 1월 14일) 17권 (1924년 11월 27일) 18권 (1926년 1월 28일; 1926년 2월 11일)_____

9쪽: 16권 (1924년 1월 14일; 1924년 2월 22일; 1925년 8월 15일; 1926년 1월 28일)_____

10쪽: 16권 (1923년 8월 9일; 1923년 11월 20일) 18권 (1926년 1월 28일) 31권 (1933년 3월 5일)_____

11-12쪽: 12권 (1919년 1월 29일) 14권 (1922년 11월 11일) 16권 (1923년 8월 13일; 1923년 11월 15일; 1924년 1월 4일; 1924년 2월 22일; 1924년 3월 22일; 1924년 4월 23일) 17권 (1925년 2월 22일; 1925년 5월 1일) 18권 (1925년 12월 20일)_____

13쪽: 12권 (1921년 2월 8일) 16권 (1923년 11월 15일) 17권 (1925년 2월 22일) 18권 (1925년 12월 20일) 19권 (1926년 9월 13일) 20권 (1928년 2월 5일) 35권 (1937년 12월 21일)_____

14쪽: 3권 (1900년 5월 21일) 12권 (1921년 3월 2일) 16권 (1923년 8월 5일) 17권 (1924년 9월 18일) 18권 (1925년 10월 10일; 1925년 11월 9일; 1925년 12월 20일; 1925년 12월 25일) 20권 (1926년 10월 15일; 1928년 2월 5일) 30권 (1932년 4월 30일) 31권 (1933년 2월 24일)_____

15쪽: 11권 (1914년 3월 8일) 12권 (1921년 3월 8일; 1921년 3월 17일) 15권 (1923년 7월 14일) 16권 (1923년 11월 10일; 1923년 11월 15일; 1924년 1월 4일; 1924년 2월 20일; 1924년 2월 22일; 1924년 2월 24일) 17권 (1925년 5월 1일) 18권 (1925년 10월 10일; 1925년 11월 12일; 1926년 2월 11일) 20권 (1928년 2월 5일)_____

16-17쪽: 12권 (1918년 12월 18일; 1919년 3월 20일; 1919년 5월 8일) 16권 (1923년 8월 5일; 1923년 8월 20일; 1923년 11월 24일; 1923년 12월 6일; 1923년 12월 26일; 1924년 1월 4일; 1924년 1월 14일; 1924년 2월 20일; 1924년 2월 22일; 1924년 3월 22일; 1924년 5월 9일; 1924년 5월 13일) 17권 (1924년 7월 1일; 1924년 9월 17일; 1924년 12월

8일; 1925년 1월 4일; 1925년 4월 26일; 1925년 5월 1일) 18권 (1925년 8월 15일; 1925년 10월 4일; 1925년 11월 12일; 1925년 12월 25일) 19권 (1926년 3월 19일; 1926년 6월 15일; 1926년 7월 1일; 1926년 8월 27일) 31권 (1932년 10월 9일) 32권 (1933년 3월 26일; 1933년 4월 16일)_____

18-19쪽: 12권 (1919년 1월 29일) 16권 (1923년 10월 4일; 1924년 1월 14일; 1924년 2월 2일) 17권 (1924년 9월 11일; 1924년 9월 18일; 1924년 10월 6일; 1925년 2월 8일) 18권 (1925년 11월 22일; 1925년 12월 25일; 1926년 1월 28일; 1926년 2월 11일) 31권 (1932년 11월 27일) 32권 (1933년 3월 26일)_____

20쪽: 12권 (1921년 2월 16일) 13권 (1922년 2월 4일) 16권 (1923년 12월 6일; 1923년 12월 29일; 1924년 2월 28일) 17권 (1924년 7월 16일; 1924년 9월 18일) 30권 (1932년 4월 30일)_____

21쪽: 12권 (1921년 2월 16일) 16권 (1923년 9월 6일; 1924년 2월 2일; 1924년 2월 28일) 20권 (1928년 2월 5일) 31권 (1932년 12월 21일) 36권 (1938년 5월 6일)_____

22쪽: 12권 (1921년 2월 16일) 17권 (1924년 9월 11일) 18권 (1925년 12월 25일) 32권 (1933년 5월 14일) 36권 (1938년 5월 6일)_____

23쪽: 5권 (1903년 3월 24일) 12권 (1919년 3월 6일; 1921년 3월 12일) 13권 (1921년 9월 14일) 16권 (1923년 7월 30일; 1923년 12월 26일; 1924년 5월 13일; 1924년 2월 2일; 1924년 2월 28일; 1924년 5월 13일) 17권 (1924년 9월 18일; 1925년 1월 4일; 1925년 2월 15일; 1925년 3월 15일; 1925년 4월 23일) 18권 (1925년 11월 22일) 31권 (1932년 7월 24일; 1932년 9월 25일; 1933년 1월 6일) 32권 (1933년 3월 26일; 1933년 4월 2일)_____

24쪽: 12권 (1919년 1월 29일) 16권 (1923년 7월 27일; 1923년 10월 16일; 1923년 11월 8일; 1923년 12월 26일) 17권 (1924년 8월 14일; 1926년 11월 1일) 18권 (1925년 11월 22일) 20권 (1926년 11월 16일) 31권 (1932년 7월 24일; 1932년 11월 20일; 1933년 1월 6일) 32권 (1933년 3월 12일; 1933년 4월 29일; 1933년 5월 14일; 1933년 5월 25일)

25쪽: 2권 (1899년 9월 5일) 4권 (1901년 9월 5일) 16권 (1924년 2월 28일) 32권 (1933년 5월 25일)

26쪽: 13권 (1922년 2월 4일) 16권 (1923년 8월 20일; 1924년 3월 2일; 1924년 5월 19일) 17권 (1924년 9월 17일; 1925년 2월 15일; 1925년 3월 15일) 30권 (1932년 4월 30일) 31권 (1932년 10월 21일) 32권 (1933년 5월 25일)

27쪽: 3권 (1900년 5월 21일) 12권 (1917년 12월 6일; 1919년 2월 13일; 1921년 4월 23일) 13권 (1921년 8월 13일; 1921년 8월 25일) 16권 (1923년 8월 5일; 1923년 8월 20일; 1923년 11월 15일; 1924년 2월 8일; 1924년 2월 20일; 1924년 3월 22일) 17권 (1924년 9월 17일; 1924년 10월 23일) 18권 (1925년 8월 9일; 1925년 11월 12일; 1925년 11월 22일) 20권 (1928년 2월 5일) 31권 (1932년 11월 20일; 1932년 12월 6일)

28-29쪽: 3권 (1899년 12월 21일; 1900년 5월 21일) 11권 (1916년 10월 13일) 12권 (1919년 2월 13일; 1921년 3월 2일; 1921년 4월 23일; 1921년 4월 26일) 13권 (1921년 8월 13일) 16권 (1924년 2월 8일; 1924년 5월 9일) 17권 (1925년 2월 15일; 1925년 4월 23일) 18권 (1925년 11월 22일) 20권 (1928년 2월 5일)

30-31쪽: 12권 (1919년 1월 29일; 1921년 1월 5일) 14권 (1922년 4월 21일; 1922년 11월 11일) 16권 (1923년 11월 15

일; 1923년 12월 26일; 1923년 12월 29일; 1924년 1월 20일; 1924년 2월 8일; 1924년 2월 28일; 1924년 3월 2일; 1924년 3월 19일; 1924년 6월 6일) 17권 (1924년 10월 2일; 1925년 1월 4일; 1925년 3월 8일) 18권 (1925년 11월 9일; 1925년 11월 12일) 31권 (1932년 9월 18일)_____

32쪽: 12권 (1920년 5월 8일) 14권 (1922년 4월 21일) 16권 (1924년 3월 2일; 1924년 3월 13일; 1924년 3월 19일; 1924년 3월 22일) 17권 (1925년 3월 8일) 18권 (1925년 10월 4일; 1925년 11월 12일; 1925년 11월 19일) 31권 (1932년 10월 9일)_____

33쪽: 12권 (1921년 1월 24일) 13권 (1921년 12월 15일) 16권 (1923년 12월 29일; 1924년 3월 22일) 17권 (1925년 1월 4일) 18권 (1925년 10월 4일; 1925년 11월 19일)_____

34쪽: 16권 (1923년 12월 29일; 1924년 3월 22일)_____

35쪽: 3권 (1900년 3월 2일) 4권 (1902년 12월 24일) 7권 (1906년 9월 23일; 1906년 10월 2일; 1906년 10월 31일) 14권 (1922년 11월 11일) 32권 (1933년 5월 25일)_____

36쪽: 12권 (1919년 4월 7일) 14권 (1922년 1월 15일) 16권 (1923년 11월 24일; 1924년 3월 2일; 1924년 1월 20일; 1924년 2월 8일; 1924년 2월 22일; 1924년 2월 24일; 1924년 3월 2일; 1924년 3월 19일) 17권 (1924년 8월 14일; 1925년 1월 4일; 1925년 1월 27일) 18권 (1925년 10월 24일; 1925년 11월 25일; 1926년 1월 24일; 1926년 2월 11일) 20권 (1932년 4월 30일) 31권 (1932년 9월 18일; 1932년 9월 25일) 32권 (1933년 5월 25일) 5권 (1903년 3월 24일)_____

37-38쪽: 8권 (1908년 2월 9일; 1908년 12월 27일) 12권 (1917년 3월 28일; 1918년 12월 27일) 13권 (1921년 12월 15일) 16권 (1923년 11월 24일; 1923년 12월 29일; 1924년 3월 2일; 1924년 3월 13일; 1924년 3월 19일) 17권 (1925년 1월 4일; 1925년 8월 2일) 18권 (1925년 10월 1일; 1925년 10월 4일; 1925년 11월 9일; 1926년 2월 6일) 31권 (1932년 9월 18일; 1933년 3월 5일)

39쪽: 8권 (1908년 2월 9일; 1908년 12월 27일) 12권 (1917년 3월 28일; 1918년 12월 27일) 13권 (1922년 3월 20일) 17권 (1925년 8월 4일) 18권 (1926년 2월 6일) 31권 (1932년 9월 18일)

40쪽: 8권 (1908년 2월 9일) 13권 (1922년 1월 20일) 16권 (1924년 3월 2일) 17권 (1925년 3월 21일) 18권 (1926년 2월 6일) 31권 (1932년 9월 18일)

41쪽: 13권 (1921년 8월 25일) 14권 (1922년 6월 23일) 15권 (1922년 11월 28일; 1923년 1월 24일) 16권 (1923년 7월 23일; 1923년 11월 8일; 1924년 2월 2일; 1924년 2월 10일; 1924년 2월 20일; 1924년 2월 28일; 1924년 3월 2일) 17권 (1924년 10월 23일; 1924년 10월 30일; 1924년 9월 11일; 1924년 9월 18일; 1925년 1월 4일; 1925년 2월 8일; 1925년 3월 1일; 1925년 5월 1일) 18권 (1925년 12월 25일; 1926년 2월 6일) 19권 (1926년 3월 19일; 1926년 6월 15일; 1926년 7월 1일) 20권 (1926년 9월 17일; 1926년 10월 15일; 1926년 11월 16일) 31권 (1932년 7월 24일; 1932년 9월 18일; 1932년 12월 21일; 1932년 11월 20일; 1933년 1월 29일) 32권 (1933년 5월 14일)

42쪽: 14권 (1922년 11월 6일) 16권 (1923년 8월 1일; 1923년 9월 6일; 1923년 10월 16일; 1923년 12월 29일; 1924년 2월 18일) 17권 (1924년 7월 16일; 1924년 10월 6일; 1924년 10월 11일; 1924년 10월 30일) 18권 (1925년 8월 9일; 1925년 8월 15; 1925년 9월 16일; 1925년 10월 10일; 1925년 11월 19일) 20권 (1926년 10월 29일) 31권 (1932년 9월

18일; 1932년 10월 9일; 1932년 12월 16일) 32권 (1933년 3월 12일; 1933년 3월 26일; 1933년 4월 16일)_____

43쪽: 2권 (1899년 4월 12일) 6권 (19904년 9월 8일) 8권 (1908년 4월 8일) 9권 (19910년 11월 1일) 12권 (1919년 1월 29일; 1921년 2월 22일) 16권 (1923년 7월 24일; 1923년 9월 6일; 1923년 9월 6일; 1923년 10월 16일; 1923년 10월 30일; 1923년 11월 5일; 1923년 11월 8일; 1923년 11월 20일; 1924년 1월 24일; 1924년 3월 19일; 1924년 4월 23일; 1924년 5월 13일; 1924년 5월 24일) 17권 (1924년 12월 8일; 1925년 2월 15일; 1925년 3월 15일) 18권 (1926년 1월 30일) 31권 (1932년 9월 25일; 1933년 1월 6일) 32권 (1933년 3월 12일; 1933년 3월 26일; 1933년 4월 2일; 1933년 5월 25일)_____

44-45쪽: 2권 (1899년 2월 28일) 5권 (1903년 3월 20일; 1903년 6월 30일) 6권 (1904년 3월 20일; 1904년 12월 29일) 12권 (1918년 5월 23일; 1921년 2월 2일) 14권 (1922년 11월 6일) 17권 (1924년 7월 1일; 1924년 10월 30일; 1925년 1월 27일) 18권 (1925년 12월 25일) 36권 (1938년 6월 30일)_____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활동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비는 간청기도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뜻이시여, 끊임없이,
 저희 정신 안에서 생각하소서.
 저희 피 속에서 흐르소서.
 저희 눈 안에서 보소서.
 저희 귀 안에서 들으소서.
 저희 음성 안에서 말씀하소서.
 저희 숨 안에서 숨 쉬소서.
 저희 심장 안에서 고동치소서.
 저희 활동 안에서 활동하소서.
 저희 고통 안에서 괴로워하소서.

저희 영혼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결합되어 있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바쳐진
 주님 뜻의 살아 있는 십자가상이 되게 하소서.

저희 안에서 기도하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저희의 기도로 당신께 바치시어,
 모든 사람이기도한 것처럼 받아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소서. 아멘.

